

조상의 얼이 살아숨쉬는 '정신의 불'

《혼불》(전10권) 펴낸 최명희씨

소설가 최명희씨(50)가 전5부 제10권으로 이뤄진 대하예술소설 《혼불》(한길사)을 마무리했다. 80년 봄 첫장을 쓰기 시작해 96년 12월까지 꼭 17년의 세월이 들어갔다. 최명희씨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듯 《혼불》을 써내려갔다. 원고지에 만년필을 이용한 집필이 중노동과 다를 바 없었지만, 최명희씨는 “행복했다”고 토로한다.

최명희씨는 1947년 전북 전주서 났다. 어려서는 신문읽기를 즐긴 똑똑한 소녀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까닭에 당신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다. 학창시절 거의 모든 백일장을 석권하며 일찍이 ‘문재’를 뽑낸 바 있다. 그렇지만 등단시기는 좀 늦은 편이다. 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온 것이 서른 세살 때. 스물 세살 때 전국대학생 문학콩쿠르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10년 만의 일이었다.

일제하 이씨 종가집의 가족사

전주 일원에서 떨쳤던 문명(文名)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기까지 소요된 10년의 습작기간은 ‘인고(忍苦)의 날들’이었다. 한 알의 씨앗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줄기와 가지를 뺏고, 잎이 무성해지며, 꽃을 피우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리라. 이런 곱삭은 문학수련 과정을 거쳤기에 등단 이듬해 《혼불》의 1부를 갖고 동아일보 장편소설에 당선되고서도 화려한 각광을 피해 몸을 낮출 수 있었다. 최명희씨는 사숙한 바도 없고, 문학동인 활동을 한 적도 없는 오로지



최명희씨.

홀로 글쓰기를 갈고 닦은 전통적 외미의 습작기를 거쳤다. “작가의 길에 뜻을 품은 젊은이가 있다면 여건의 불비함을 탓하지 말고 매진하라”고 당부한다.

‘혼불’은 사전에 없는 말이다. 혼불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 속에 들어 있다. 죽기 사흘 전에 몸을 빠져나간다는 혼불은 ‘목숨의 불’ ‘존재의 불’ ‘정신의 불’ ‘감성의 불’을 일컫는 말이다. 영혼·혼령·정신 같은 혼불과 비슷한 말들이 이원론적인 개념인 반면, 혼불은 육신과 뒤섞여 존재하는 일원론적인 개념이다.

《혼불》은 1930년대 후반에서 43년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팽창야욕을 노골화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매안 이씨 종가집의 가족사를 다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행을 와서 저수지 축조 등을 통해 카리스마를 내뿜는 청암부인, 우유부단한 종손 강모, 여러 사람 망칠 여자 강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강모의 처 효원이 주요 등장인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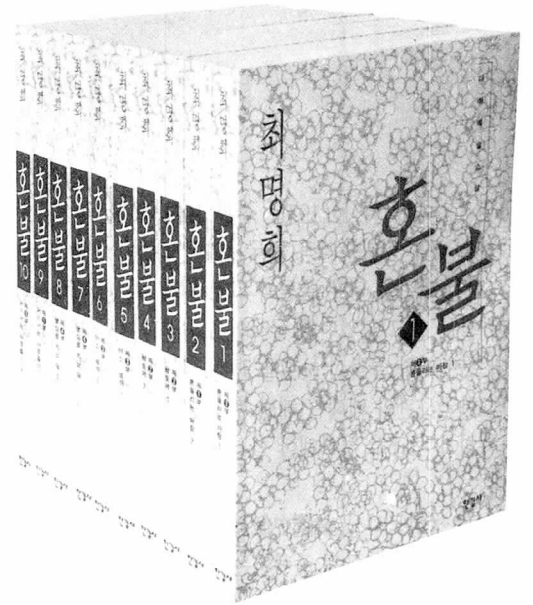
《혼불》은 1930년대 후반에서 43년까지 일제하 팽창야욕을 노골화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매안 이씨 종가집의 가족사를 다룬다. 우리 전통의 습속이 온축돼 있는 이 소설은 한국문학의 삶의 자취를 그대로 되살려 놓았다.

나온다.

사촌 오누이 사이인 강모와 강실의 ‘상피’를 도입 부분에 설정한 것이 이채롭다. 최명희씨는 둘의 근친상간을 두고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태어나면서 지니게 되는 숙명이고 원죄다. 어쨌든 강모와 강실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고 말한다.

우리의 전통 습속 온축

한국박물지로서의 측면은 《혼불》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혼불》에는 관·혼·상·제례를 비롯한 우리 전통 습속이 온축돼 있다. 조선의 얼이 살아 숨쉰다. 《혼불》의 그물망에 걸린 우리 조상의 삶의 자취는 새 생명을 얻는다. 6권과 7권에 나오는 ‘사돈서’도 그 가운데 하나.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신랑이 작성한 사돈서는 다른 등속과 함께 함으로 보내져 고이 간직돼다 아내의 저승길에 신고 가는 신발로 만들어진



다.

그렇다고 《혼불》이 복고 일색은 아니다. 방대한 분량과 의고체의 문장에 겁을 먹고 범접을 꺼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혼불》 읽기는 어디서 시작해도 좋기 때문이다. 동서남북의 순행적인 구조가 아니라 동남서북의 원환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기응의 귀에는 꿀벌들의 닥치는 소리가 햇발에 섞여 감미롭게 들린다. 여왕벌 하나를 모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꿀을 물어 나르며 자기의 직분과 의리를 다하는 평화가 그대로 전해진다. 기응은 고개를 들어 바람을 마신다.” 무심코 펼쳐든 면의 문장 속에도 영감(靈感)이 서려 있다.

《혼불》은 지난해 12월초 “문학의 해가 저물기 전에 완성하자”는 취지로 발간되었다. 하지만 소설에 재현된 한국문화의 면면은 《혼불》의 가치를 새해에 더욱 빛나게 할 것 같다. 곧 《혼불》은 문화유산의 해에 바치는 ‘영품(靈品)’이다. — 최성일 기자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 1 나만이 아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 장난꾸러기 꼬마전구
E. 리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3 비릴로의 동물농장
M. 아놀렛트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4 평화의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5 여덟가지 진짜이야기[과학 동화]
E. 산단케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6 보물이 숨겨져 있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7 천지창조 이야기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8 진주섬 이야기
I.G. 올리바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9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L.C. 알리만디 지음/노재운 옮김/3,000원
- 10 하느님, 제 기도 들어보세요
M. 라이스트 지음/강성위 옮김/4,000원
- 11 물방울의 추억[과학 동화]
E. 드랄라 지음/채운경 옮김/3,000원
- 12 황새와 아기바구니
M. 아놀렛트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3 사랑을 나누는 꿈, 보로
R.M. 룬디니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4 뇌 속으로의 여행[과학 동화]
F.B. 니카세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5 거리의 화가
F.B. 니카세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6 가난뱅이 조니와 아르니카
E. 라이자르 지음/채운경 옮김/4,000원

- 17 평화의 어린이들
G. 스타스 지음/채운경 옮김/3,000원
- 18 아프리카 동화
아자리안, 케넬렐 엠티/노재운 옮김/3,000원
- 19 두 임금님
F.B. 니카세오 지음/채운경 옮김/3,000원
- 20 늙은 자동차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1 코뿔소에게 안경을 씌워 주세요
이윤희 지음/4,000원
- 22 사각형의 세계[수학 동화]
F.B. 니카세오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 23 흑인 소년 삼미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4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M. 아놀렛트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 25 잠자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M. 보띠리에리 지음/노재운 옮김/4,000원
 - 26 우물 속의 보물
L. 코몰리 지음/채운경 옮김/4,000원
 - 27 환상의 나라에서
E. 올리베로 지음/노재운 옮김/4,000원
 - 28 자유를 사랑한 아기곰 벨라[환경 동화]
M. 스트리안네지 지음/채운경 옮김/4,000원
 - 29 무지개 흑성
P. 아를레르 지음/노재운 옮김/4,000원
 - 30 선생님님 들려 주신 이야기
M. 보띠리에리 지음/김홍래 옮김/5,000원
 - 31 착한 마녀 아바굴
M. 제니시오 지음/김홍래 옮김/5,000원
- 우체부 아저씨
G. 마르티니코 지음/채운경 옮김/* 근간 예정